



주간통일정세 2014-04(2014.01.20~01.2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4-0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공수부대 야간훈련 '불시' 참관 (1/2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항공육전병부대(우리의 공수부대)의 야간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통신은 "각 군종·병종 부대의 야간 실전능력을 대단히 중시하는 최고 사령관(김정은) 동지는 항공육전병 구분대들이 야간전에 대처할 수 있게 준비됐는가를 검열하고자 불의에(불시에) 야간훈련을 조직하고 지도했다"고 밝힘.
 - 김 제1위원장은 "불리한 야간 조건에서도 전투원과 비행사들이 어려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치하하고 나서 "군인들이 언제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려면 훈련을 실전처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대제안' 한 北 김정은, 특수전부대 훈련 잇단 참관(1/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동지께서 '오중흡7연대' 칭호를 받은 인민군 제323군부대의 전술훈련장을 찾아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자연지리적으로나 기상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훈련을 진행했는데 만점"이라며 "지휘관들이 군인들의 앞장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투를 지휘했기 때문에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크게 치하하고 이 부대에 최고사령관 명의의 '감사'를 전함.

- **장성택 일가 모두 처형...장용철·전영진 대사 포함(1/26,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장성택의 일가 친인척 대부분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북수의 대북소식통은 2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장성택의 친인척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이 이뤄졌다"며 "장성택의 친인척은 어린 아이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전함.
 - 소식통에 따르면 장성택의 누이인 장계순과 매형인 전영진 쿠바 대사, 장성택의 조카인 장용철 말레이시아 대사와 그의 아들인 20대 중반의 태령·태웅은 작년 12월 초 평양으로 소환돼 처형됨.



- 김정은동향
 - 1/20,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항공육전병 구분대들의 야간훈련 지도 (1.20,중통·중방)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변인선, 김격식, 김수길, 리병철, 박정천, 황병서 동행
 - 1/22,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원산시에 건립하는 사업에 기여한' 강원도 금강관리국 일꾼 등에게 [감사] 전달 (1.22,중방)
 - 1/23, 김정은 黨 제1비서, 마두산 혁명전적지 시찰(1.23,중통·중방)
 - 황병서, 마원춘, 김영철, 박정천 동행
 - 1/23, 김정은 黨 제1비서, 오중흡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軍 제323군 부대 전술훈련 지도(1.23,중통·중방)
 - 리영길, 김수길, 리병철, 김영철, 박정천, 황병서 동행
 - 1/23, 김정은 黨 제1비서, 국가과학원에 '윤전기재들' 선물 전달 (1.23,중통·중방)

나. 경제

- 北 "황금평 송전선 공사 90% 이상 진행"(1/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압록강 하류의 섬인 황금평과 평안북도 신도군을 잇는 송전선 공사가 22일 기준으로 90% 이상 진행됐다고 보도함.
 - 노동신문은 평안북도 송·배전부가 황금평~신도군 송전선 공사를 이달 중으로 끝낸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작년에는 신의주시 연하지구~용천군 진흥리 구간 송전탑 조립 공사도 완료했다고 전함.

다. 사회문화

- 北, 올해부터 평양역 현대화 사업(1/21, 조선신보)
 - 북한 철도성의 김순옥 국장은 철도운수사업 계획과 관련해 "올해부터 평양역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게 된다"고 밝혔다
 - 김 국장은 또 철도성이 올해 추진할 사업으로 철도의 과학기술 발전을 언급하고 "현대적인 철도차량들을 연구개발한다"며 철길을 중량화, 현대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힘.
- 北 결핵 치료 수요보다 공급 턱없이 부족(1/21, 글로벌포스트;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는 21일 인터넷 매체 '글로벌 포스트'를 인용해 북한의 결핵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힘.
 - 지난해 11월 동료와 함께 2주일간 북한을 방문했던 스탠퍼드대 의대 계



리 스쿨닉 교수는 "북한에서는 소수의 결핵 환자들만이 현대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며 "결핵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려면 적어도 6개월 동안 4가지 항생제를 투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함.

- **北 이동통신 '고려링크' 매출 급증..."가입자 증가 덕"(1/22, 연합뉴스)**
 - 고려링크의 지분 75%를 가진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콧이 최근 자사 웹사이트를 공개한 작년 1~9월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고려링크의 매출은 2억3천44만 달러(약 2천460억 원)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1년 11월 말부터 2012년 9월 말까지 고려링크의 매출 1억6천31만 달러보다 43.7% 증가한 액수라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北 노동신문, 고아 등 취약계층 챙기기 부각 눈길(1/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절세위인의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간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고아와 양로원 노인들을 잘 챙기는 각지의 노동당 간부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함.
 - 신문은 "(고아원) 원아들과 양로원 보양생(노인)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잘 돌봐주는 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각지 당조직과 당 일꾼들은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밝힘.

- **北, 개정 교육법서 '과학기술 인재 육성' 강조(1/26, 연합뉴스; 민주조선)**
 - 북한이 지난해 교육법을 개정해 과학기술에 관한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연합뉴스가 26일 입수한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1월 17일자는 '법규해설' 코너에서 북한이 12년제 의무교육의 시행에 맞춰 작년에 교육법을 개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소개함.
 - 민주조선은 교육법이 1장에서 교육사업의 제반 원칙으로 ▲건전한 사상과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인재 육성 ▲수재교육 강화 ▲교육부문 지원 강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힘있게 추진하는 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억류 케네스 배 기자회견..."석방 월해"(1/20, 조선중앙통신; 신화통신)**
 - 케네스 배 씨는 20일 평양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조선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해서 조기에 석방되기를 희망한다"라며 "나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조선과 서방 간의 우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조선이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20일 조선중앙통신과 신화통신이 보도함.

- **북한 김정남, 이달 말레이시아 입국(1/21, 요미우리 신문)**
 - 김정남이 이달 들어 거점으로 삼아온 싱가포르를 떠나 말레이시아에 입국했으며, 수도 쿠알라룸푸르 시내의 한국식당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고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함.

- **北 "자본주의 나라와도 친선관계 발전 노력"(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과 '발전도상나라'(개발도상국)들의 친선 강화를 언급하며 "우리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우리 공화국 정부는 국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평등과 호상존중(상호존중)의 원칙에서 경제기술협조와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키며 이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덧붙임.

- **케네스배 여동생 "오빠 잘못 사과"...석방 호소(1/21, CNN)**
 -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의 평양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가족이 북한에 사과의 뜻을 표하며 배 씨의 석방을 호소했다고 21일 CNN이 보도함.
 - 케네스 배의 여동생 테리 정은 성명에서 "우리는 케네스가 (북한)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이해하며 그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케네스 역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 나선특구에 중국 전력 공급사업 지지부진(1/22,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 중인 북한 나선특구에 중국 측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한 대북소식통은 22일 "북한 측은 나선특구 입주기업들이 일단 자신들에게 전기료를 납부한 뒤 이를 중국 측에 전달하기를 희망하지만, 중국 측은 전기료를 직접 수금하는 방식을 원한다"면서 "일단 북한 측에 돈이 들어가면 이를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함.

- **北, 신임 알제리 주재 대사에 최혁철 임명(1/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알제리 주재 조선(북한) 특명전권 대사로 최혁철 동지가 임명됐다"라고 보도함.

- **美, 지난해 대북 수출 1천400만 달러 승인(1/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상무부가 2013년 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에 약 1천



게 될 것"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미국은 (푸에블로호 사건 당시) 섬겨 바쳤던 사죄문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교훈을 똑바로 찾아야 한다"라며 "침략은 반드시 수치와 파멸로 이어지며 무분별한 모험으로는 상상 밖의 파국적 후과(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조미 대결의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라고 주장함.

● **장성택 처형후 소환됐던 북한 무역일꾼 '원위치'(1/23, 연합뉴스)**

- 23일 북·중 접경 지역 대북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달 장성택 처형 이후 선양(瀋陽), 단둥(丹東), 연변(延邊) 등지에서 본국으로 대거 소환됐던 북한의 상사 주재원과 대표처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단둥의 한 소식통은 "장성택 숙청과 처형이 일사천리로 이뤄져 중국에 파견된 무역일꾼이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철수 형태로 귀국한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 돌아와 업무를 재개했다"고 말함.

● **北, 북중친선 잇달아 부각... "수교 65년 뜻깊은 해"(종합)(1/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설명절을 맞아 조(북)중친선 모임이 평양 순안구역 조중친선택암협동농장에서 열렸다고 보도함.
-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조중친선택암협동농장, 중국 문화부,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연 이 모임에는 북측에서 김진범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과 홍광웅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중국측에서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 대사 등이 참석함.
- 류 대사는 이 자리에서 "새해에도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중국대사관 명의로 이 농장에 지원증서를 전달하기도 함.

● **북한, 중국 쿤밍에 문화교류센터 개소(1/24, 신화통신)**

- 북한이 중국 서남부 윈난(雲南)성에 처음으로 북한식당과 미술·공예품 전시공간 등을 갖춘 문화교류센터를 열었다고 신화통신이 24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 오륜무역총회사는 중국 윈난신즈(新杼)집단과 손잡고 윈난성의 성도인 쿤밍(昆明)에 지난 22일 '북·중 문화협력교류센터'를 개소함.
- 양측은 지난해 5월 윈난성 정부의 승인을 받은 뒤 반 년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쿤밍의 유명한 호수 관광지인 덴츠(전(삼수변에 眞)池) 부둣가에 센터를 열음.

● **北, 작년 對中 무연탄 수출액 15.5% 늘어(1/24,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석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연합뉴스가 전함.

- 24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작년 한해 중국에 수출한 무역탄 총액은 13억 7천 371만 달러로 2012년 11억 8천 979만 달러에 비해 15.5%(1억 8천 392만 달러) 증가함.

● 중국 연변TV, 북한과 설 특집 프로그램 공동 제작(1/24, 연변일보)

-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의 TV방송국이 올해 춘제(春節·설) 특집 프로그램을 북한과 공동 제작해 방영한다고 연변일보가 전함.
- 일보에 따르면 연변TV방송국은 매년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설 특집 프로그램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 올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공동 제작하기로 합의함.

● 국제구호단체, 北어린이 310만명에 일본뇌염 예방접종(1/25, 자유아시아 방송(RFA))

- 국제구호단체인 독일 카리타스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북한 어린이 일본 뇌염 예방접종 사업을 최근 끝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독일 카리타스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평양과 평안북도, 함경남도, 황해남도의 2~4세, 9~16세 어린이 310만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함.

● 英, 최근 5년간 北에 186억 규모 인도적 지원(1/25, 미국의소리(VOA))

- 영국 정부가 최근 5년간 북한에 1천 40만 파운드(약 186억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함.
- 앨런 던킨 영국 국제개발부 장관이 지난 22일 의회에 제출한 대북 인도적 지원 내용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5년간 1천 38만 9천 파운드(약 186억 4천 만원)를 지원함.

● 북한, 중국서 태양광에너지 기술·장비 전수(1/25,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25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베트남, 미얀마 등과 함께 중국의 재생에너지 전문기업들로부터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설비를 구매함.

● 北 노동신문 "日, 안중근 의사 함부로 모독 말라"(1/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일본 당국자가 최근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일애국 열사를 함부로 모독하지 말라"고 지적함.
- 신문은 중국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개관했다고 밝히면서 "조선인민뿐 아니라 중국인민에게도 헤아릴 수 없는 불행을 안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열사의 장거를 찬양해 기념관을 건설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함.

■ 기타 (대외 일반)

- 日 아베 총리의 연두소감 발표(강한 일본 되찾기 이제 시작)에 대해 "군국주의 광신자의 본색을 드러낸 망발"이라며 '평화를 바라는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가'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우롱'이라고 비난(1.20, 중통·평방·노동신문)
- '미국은 평화의 교란자, 전쟁광신자'라고 지속 비난 및 '평화는 청원이나 구걸로써 보장할 수 없고 오직 투쟁으로써만 쟁취할 수 있다'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군력을 강화할 것' 주장(1.22, 중통·노동신문)
- '고종 황제 독살' 95돌 즈음 '위안부·독도 영유권 주장'과 아베의 '강한 일본' 발언을 거론하며 '역사의 반인륜적 죄악을 저지르는데 대해 성근하게 반성하고 과거청산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1.22, 중통·노동신문)

나. 6자회담(북핵)

● 北 "제재는 핵 문제 해결 방도 아니다"(1/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이란 핵협상이 작년 11월 타결됐음에도 미국 의회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함.
- 신문은 미국이 이란 핵협상 타결로 "핵무기 개발이니 뭐니 하면서 이란에 대해 국제적 압박을 가하고 내정간섭 책동을 일삼던 구실을 잃어버렸다"며 "이에 심사가 뒤틀린 미국은 이 나라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겠다고 야단법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함.

● 러 "북한 6자회담 재개 준비 신호 보내와"(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북한 지도부는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다른 여러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태도가 진정성이 있음을 입증할만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함.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중대 제안' 수용 거둬 촉구...'의심부터 버려라'(1/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대결의 역사에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남조선 당국은 우리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을 받아들일 대신 터무니없이 '도발'을 운운하며 대결 광기를 부리고 있다"며 "(심)지어 남조선 군부세력은 도발에 대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느니, '응징'이니 하고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불신과 대결의 감정을 속에 품고 북남관계 개선을 운운할 때는 지나갔다"며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구원하고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자면 남조선 당국이 동족에 대한 편견과 불필요한 의심부터 털어버려야 한다"고 밝힘.

- **北, '통일 대박론'은 "급변사태 바라는 흡수통일 망상"(1/20, 통일신보;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20일 입수한 북한의 대외 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1월18일자)는 '통일은 대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글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밝힌 사실을 거론하며 이 말에는 "급변사태에 기대를 건 흡수통일의 망상이 깔려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북한이 "천만 군민이 영도자의 두리(둘레)에 철통같이 뭉쳐 있다"며 "급변사태나 '북한 붕괴론'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헛된 망상"이자 "너무도 천진난만한 생각"이라고 일축함.

- **北 유화공세 계속...'평화수호 의지 확고부동'(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평화수호는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땅에서 대결과 전쟁 위험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조선민족에게 부과된 중대한 역사적 과제"라며 "민족사의 이 엄숙한 부름 앞에 북과 남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힘.
 - 신문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16일 '중대 제안'을 내놓은 것도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함.

- **北 "한반도 비핵화 원하면 美 핵공격 수단 반입 말라"(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핵재난의 근원을 청산해야 한다'는 논설에서 2월 말부터 시작할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핵타격 수단들이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쓸어들(몰려들) 것은 뻔하다"며 이로 인



- 해 한반도 긴장과 핵전쟁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지적함.
- 신문은 "남조선 당국은 진실로 북남 사이의 관계개선,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바란다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미국의 핵 공격 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분별없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
- **北 국방위 "중대제안, 위장평화공세 아니다"(종합)(1/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4일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남한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지난 16일 내놓은 '중대제안'이 위장평화공세가 아니라는 것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국방위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특명에 따른 남조선 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 각계층 인민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우리의 중대제안은 결코 위장평화공세도, 동족을 대상으로 벌이는 선전심리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이 전함.
 - 공개서한은 "우리는 이미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극이나 비방중상을 전면중지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우리의 중대제안은 결코 그 무슨 새로운 '도발'을 전제로 한 구실이나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뼈뜰어진 여론이나 바로잡기 위해 내놓은 명분 쌓기는 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함.
 - **北 노동신문 '남북관계 개선' 집중 부각...비난 없어(1/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공동선언들의 성실한 이행에 조국통일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말로만 신뢰를 외위서는 북남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남북정상이 합의했던 공동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공동선언들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이행된다면 북남관계의 개선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함.
 - 신문은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민심의 강렬한 요구'라는 글에서는 남한에서 민주당 등 야당과 언론, 전문가들이 중대제안을 지지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세의 흐름을 따라 북남관계 개선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 **정부, 北공개서한 반박..."행동으로 진정성 보여야"(종합)(1/24, 연합뉴스)**
 - 정부는 24일 "북한이 진정 남북관계 발전을 원한다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북한 국방위가 발표한 '공개서한'을 반박함.
 - 정부는 오후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정부 입장'을 통해 북한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실천적 행동을 촉구함.
 - 김 대변인은 "북한은 소위 중대제안이 위장 평화공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위장 평화공세인지 아닌지는 한 번의 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은 지금부터라도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힘.



- **北, '중대제안' 유엔안보리 공식문건으로 배포(1/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 16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한국 정부에 보낸 '중대제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통신은 "남조선 당국에 보낸 중대제안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가 2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 문건 S/2014/ 37호로 배포됐다"라고 전함.

- **北, 국방위 '공개서한' 주민반응 대대적 소개(1/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1면 절반을 할애해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에 대한 각계의 반향이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지금 전국 도처에서 우리 인민은 국방위가 공개서한을 보낸 데 대한 지지찬동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다"고 밝힘.
 - 신문에 따르면 김용철 전력공업성 부상은 "(공개서한은) 조국통일을 진실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주장" 이라고 강조했으며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인 김영항 박사는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얼싸안고 통일 만세를 목청껏 외칠 그날이 벌써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다"고 전함.

나. 경제·사회·문화

- **북한, 2014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첫 시사(1/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올해 북한 축구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경기를 소개하면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벌어지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축구경기에 남녀 축구팀들이 다 참가한다"라고 밝힘.

- **AI 영향으로 남측 닭·계란 개성공단 반입 금지(1/24, 연합뉴스)**
 -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한국산 닭과 계란의 개성공단 반입이 금지된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함.
 -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24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보낸 안내장에서 "AI 확정 판정에 따라 남측 닭과 계란의 (개성공단으로의) 반출이 금지된다"고 밝힘.

- **北, 이산가족 상봉제의... "설 지나 편리할때 금강산서"(종합2보)(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24일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전격 제의했다고 전함.
 - 통신은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남측 적십자사에 통지문을 보내 "북남 사이의 흠어진 가족, 친척 상봉행사를 진행하자"라고 제안했다고 보도함.
 - 통지문은 "상봉행사는 이미 북남 적십자단체들이 합의하였던대로 금강



산에서 진행하되 날씨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설이 지나 날씨가 좀 풀린 다음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힘.

● 정부 "뒤늦게나마 이산상봉 우리 제안 수용 환영"(1/24, 연합뉴스)

- 정부는 24일 북한이 설 이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전격 제의해 온 데 대해 "북측이 뒤늦게나마 우리의 제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는 보도자료에서 "이산가족 상봉 시기와 협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추후 통보할 것"이라며 이 같은 우리 입장을 밝힘.

■ 기타 (대남)

- 北, '南 당국이 대결관념을 버리고 동족과 과감히 손잡는 용단을 내린다면 남북관계에서 풀지 못할 난관은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올바른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중대제안' 수용 거듭 촉구 (1.20, 중통·중방·노동신문)
- '용산참사(1.20) 5주기 즈음 '철거민들의 생존권과 생명들을 빼앗아간 천인공노할 살인 만행사건'이라고 '이○○정권' 비난 및 '지금 남조선에서는 용산참사가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다'며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1.20, 중통)
- '평화수호는 北의 일관한 정책이며 不變 의지'라며 이번 '北 「국방委」 對南 중대제안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선전 공세 및 '온 겨레의 지지' 선동(1.21, 중통·노동신문·중방)
- 北 중대제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실왜곡' 등 입장 표명 관련 '중대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망쳐놓고 정세를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최악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1.22, 중통·노동신문·중·평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러시아 외무 "북한 '6자회담 재개 준비' 신호">(1/21, 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지도부가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라브로프 장관은 다른 회담 참가국들이 대화 재개에 앞서 북한이 실질적 행동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참가국들이 '누군가의 체면을 잃거나 살리는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6자 회담에서 한 실무회의를 이끌어 회담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번스 "北 비핵화 조치위해美中 협력해야">(1/23, 연합뉴스)
 - 윌리엄 번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방중 결과에 관한 성명서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무 준수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미중간 길밀한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 번스 부장관은 또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언급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논의를 위한 미중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성명은 전했다.
 - 그의 발언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선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됨.

- <北유엔대사 "6자회담 시기 한국·미국에 달려있다">(1/24, 연합뉴스)
 -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24일(현지시간) 낮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6자회담에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응할 자세가 돼 있으며, 6자회담 성사 시기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 밝혔다.
 - 앞서 회견에서 신 대사는 지난 16일 있었던 북한의 '중대제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한 것은 압력을 가하지는 것이 아니라 남한이 심중하게 받아들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태도를 보이게 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그는 한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 "미국과 남한은 정세를 고의로 긴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신 대사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민족 공동의 목표"라며 "우리가 보



유한 핵무력은 미국의 핵위협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물론 세계의 비핵화까지 내다본 가장 정당한 자위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음.

- <조엘 위트 "北 마음먹으면 한 두달만에 핵실험 가능">(1/25, 연합뉴스)
 - 북한 전문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북한 핵문제 세미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여부에 대해 "북한 정권이 핵실험을 결심하면 한두달 만에 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 다만 "현재로서는 핵실험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실험할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음.
 - 또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에 쓰이는 터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두차례 이상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음.
 - 서해 미사일 발사장 동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발사장에 아무것도 장착된게 없지만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공시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 발사 실험을 위한 활동들이 예상된다"고 말했음.

나. 미·북 관계

- <미국 "북한 초청時 특사파견할 것...석방 노력중">(1/21,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위해 특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으며,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 측에 조속한 사면 및 석방을 재차 촉구했음.
 - 이는 북한의 초청만 있으면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를 현지에 파견해 배 씨의 석방 교섭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해석됨.
 - 일각에서는 배 씨가 전날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방을 호소한 이후 국무부가 북한 측에 특사 파견을 공식 제안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았음.
 -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미국 정부가 배 씨의 석방을 위해 북한에 킹 특사의 파견을 제안했으며 북한 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음.
- <美 태평양함대사령관 "북한이 역내 최대 안보우려">(1/22, 연합뉴스)
 -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인 해리 해리스 대장은 싱가포르의 미군 구축함 'USS 스프루언스' 선상에서 아시아에서 북한이 미국 정부의 최대 안보우려라고 밝혔음.
 - 그는 이어 "북한에서 오는 도발에 대해 사령관으로서 우려하고 있다"면



- 서 "그들의 지도부도, 그들의 의도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 해리스 대장은 또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미군 전력을 증강 배치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곳에, 중요한 때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 해군은 지난해 최신티 연안전투함인 'USS 프리덤'을 해외로는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배치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연안전투함(LCS)을 올해 중역내에 배치할 예정이며, 그 기간은 16개월이라고 밝혔다.
- <美태평양군사령관 "김정은 이성적 판단능력 의심">(1/24, 연합뉴스)
-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은 2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예측불가능한 행동이 한반도위기를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으며,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한미 양국은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세부 계획을 세웠다"면서 이런 계획은 한반도에 전쟁이나 도발의 가능성이 지속되는 한 계속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 달 시작되는 키 리졸브 훈련 등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다"면서 "한반도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이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라클리어 사령관은 최근 미군이 한반도에 순환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커다란 전략적 조치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 결정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다. 중·북 관계

- <북한 나선특구에 중국 전력 공급사업 지지부진>(1/22,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 중인 북한 나선특구에 중국 측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음.
 - 지린성 지역 언론은 지난해 6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재 훈춘에 있는 중국 발전소에서 양국 접경인 취안허통상구까지는 송전탑 설치와 기초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두만강 너머 북한 지역에서는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음.
 - 중북 접경 지역 대북소식통들은 요금 징수 등 송전사업의 장기적인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운영체계를 놓고 중북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대기업들의 나선특구 진출이 지지부진한 상황도 중국 측이 송전사업을 서두르지 않는 배경으로 꼽힘.
 - 현지 대북소식통은 "송전사업에 많은 초기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중국이 북한의 정세 변화와 실제 전력 수요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北, 북중친선 잇달아 부각…"수교 65년 뜻깊은 해">(1/23, 연합뉴스)
 - 북한이 장성택을 숙청한 뒤 중북 양국관계가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매체는 최근 중국과 우호관계를 잇달아 강조하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류홍차이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전날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새해와 설을 맞는 친선모임을 마련했으며, 양국 참여 인사들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맞아 유대를 공고히 하는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음.
 - 북한 매체는 앞서 21일 '조중 친선 설명절 합동공연과 16일 동평양지구 상업거리 건설의 착공식에서도 양측 인사들은 중북친선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중북 친선을 별로 언급하지 않았던 작년 초와 사뭇 다른 분위기로 정치, 경제적으로 중북관계에 큰 이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라. 기타

- <사일러 "한일 갈등, 해결해야…北비핵화에 문제 안돼">(1/22, 연합뉴스)
 - 시드니 사일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 관계 토론회에서 최근 한일 양국의 과거사 갈등으로 인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특히 "북한 비핵화가 하나의 장애물 때문에 방해받는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북한이 진정성 있고 신뢰 있는 대화에 참가할 의향이 없다는 게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에 대해서도 "양국은 여러가지 역사적 문제가 있지만 과거에도 이런 문제에서 함께 진전을 이뤄냈다"면서 "이번에도 전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이밖에 사일러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최고의 억지 방안은 강력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 한국의 대북접근 강력 지지>(1/21, 연합뉴스)
 - 21일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 고위급 협의에서 윌리엄 번즈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한미 동맹, 북핵 문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음.
 - 한미 양측은 우선 북한 정세에 대한 인식 공유를 토대로 대북정책과 관련해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으며, 특히 번즈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있는 대북 접근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음.
-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양측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도발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입각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음.
 -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양측은 이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관련국들과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음.
- <前주한미사령관들 "한미연합사 체제 유지" 한목소리>(1/22, 연합뉴스)
- 21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2014 한·미 안보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존 킬러리, 월터 샤프,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2015년 12월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지만, 현행 한미 연합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밝혔음.
 - 샤프 전 사령관은 현행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작권을 예정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비해 킬러리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시키는 조건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주장했음.
 - 지난해 주한미군사령관직에서 물러난 서먼 전 사령관은 "핵심은 명령 및 지휘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는 것"이라며 "유사시에는 누가 지휘를 하고 누가 지원을 하는 문제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연합사 체제 속에서 견고한 명령 및 지휘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음.
- 나. 한중 관계
- <韓中, 안중근 기념관 설치 긴밀 협의>(소식통)<(1/20, 연합뉴스)>
- 베이징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중 양국이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소식통은 표지석 설치는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었으나 '표지석 대신 기념관을 설치하고 있다'며 한국에 공식 통보한 시점은 최근이며, 이는 북한과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안 의사 기념비 설치는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요청하고 시 주석이 유관기관에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응답한 것이 계기가 됐다.
 - 한편, 박 대통령이 중국방문 기간 중 산시성 측에 요청했던 '광복군 유적지 표지석' 설치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중, 국방장관회담 조기개최 협의키로>(1/21, 연합뉴스)
- 국방부는 21일 서울에서 중국 국방부와 양국 국방부의 국장급 정례 실



무회의인 제13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했음.

-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창원취안 중국 국방부장이 될 수 있으면 이른 시일 내 방한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회담하는 것에 공감하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국방당국 간 핫라인 설치에 대해서도 실무적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소식통은 앞으로 고위급 차원의 대화가 열리면 설치시기와 장소 등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남북한·중국, 유엔서 위안부·야스쿠니 비판>(1/22, 연합뉴스)

- 일본 언론들은 22일 한국, 북한, 중국이 유엔본부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우먼'(UN Women)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을 합동으로 비판했다고 보도했음.
- 한국 등은 특히 여성 리더십 향상 등이 의제로 다뤄진 이번 유엔 우먼 집행이사회 회의에서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음.
- 이에 대해 일본은 아베 총리가 작년 말 야스쿠니를 참배했을 때 발표한 참배 취지 성명 영역분을 40개 유엔 우먼 이사국에 배포했음.
- 아사히신문은 이 회의에서 한국, 북한, 중국이 함께 나서 위안부와 역사 인식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 한일 관계

● <정부 "참으로 이해어렵다"...아베 야스쿠니 발언 비난>(1/23, 연합뉴스)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야스쿠니 참배는 제국주의 시대 일본이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야스쿠니를 참배하면서 한일우호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앞뒤에 맞지 않고 모순되는지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 앞서 아베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일본은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세계 평화를 희망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변했음.
- 조 대변인은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북아의 여타 국가와 전 세계 언론과 지식인, 양식 있는 분들이 동일한 목소리라고 지적하며 아베 총리를 비난했음.

● <정부 "日, 제국주의 망령 못벗어나"...독도 주장 비난>(1/24, 연합뉴스)

- 정부는 24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이 허황된 주장과 부질없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나아가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가 얼마나 공허한 외침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음.

- 앞서 기사다 외무상은 이날 일본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다시 주장했으며, 또 일본 정부는 이런 주장을 담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정식으로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편, 외교부는 24일 기존 독도 홈페이지의 언어를 일본어로 바꾼 일본어판 독도 홈페이지(dokdo.mofa.go.kr/jp)를 공개했음.

라. 미중 관계

- <“중국, 올해 립팍훈련에 합선 3~4척 파견”<NHK>(1/22, 연합뉴스)
 - NHK는 중국은 올해 미군 주도의 다자 군사훈련인 환태평양합동훈련(림팍)에 해군 병원선을 포함, 합선 3~4척을 파견할 방침임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음.
 - 이어 신문은 중국의 참가는 올해가 처음이며, 이에 대해 미군 당국은 중국이 훈련 시찰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훈련 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 립팍은 약 20개국에 참가한 가운데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으로, 주로 잠수함·항공기 공격 대처, 미사일 발사 등의 전술 훈련이 실시됨.
 - 그간 이 훈련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해온 일본은 올해 육상자위대를 사상 처음 참가시킬 예정인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음.
- <“美·中, 북한 문제·동북아 갈등 논의”<1/22,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잇따라 회담을 열어 미중 관계, 북한 문제, 동북아 역사갈등 문제 등을 논의했음.
 - 중국 외교부는 이날 윌리엄 번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미중 관계와 국제·지역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음.
 - 미중 양국은 남중국해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서 장성택 처형 이후 '대화공세'를 벌이는 북한 정세 및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의 북한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전날 방중해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쩌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와 함께 제5차 아시아태평양 사무협상을 열어 미중 관계 현안과 동북아 정세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마. 미일 관계

- <“미일, NSC간 개별 전용회선 내달 개설”<닛케이>(1/20, 연합뉴스)
 - 니혼게이지신문은 미국과 일본은 양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책임자인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



보국장 간 전용회선을 다음 달 개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음.

- 미국 정부는 두 사람의 집무실을 직접 연결하는 전용 회선과 쌍방의 표정을 볼 수 있도록 TV 화면 설치를 위해 조만간 기술자를 일본에 파견, 대화가 도청되지 않도록 회선 암호화 등 기술적인 조율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 미일 양국은 현재 도청되지 않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전화회선을 두 나라 정상 외에, 미군과 자위대, 관계 각료들이 공동 사용하고 있으며, NSC 책임자 간 개별 전용 회선이 설치되는 것은 처음임.
- <日정부, 미군기지 이전 강행...오키나와 반발 확산>(1/23, 연합뉴스)
 - 산케이신문은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오키나와현 미군 기지의 '현내 이전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현지 지자체의 저항을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에 따라 방위성 간부를 관련 대책 전담자로 지명했다고 보도했음.
 - 오키나와현 가테나초 의회는 해안 매립공사를 승인한 나카이마 히로카즈 오키나와현 지사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22일 만장일치로 가결했음.
 - 양측의 대립이 거세지는 가운데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가 다음 달 오키나와를 방문해 후텐마 기지를 시찰하고 나카이마 지사를 만나 이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이를 두고 NHK는 케네디 대사가 지역민으로부터 기지 이전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음.
 - <방일 번즈 美국무 장관, 한·중과 관계개선 촉구>(1/24, 연합뉴스)
 - 윌리엄 번즈 미국 국무부 장관은 24일 일본 방위상 등과 회담을 하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얼어붙은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일본에 촉구했음.
 - 그는 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미국은 명확히 우려를 표명했다. 위험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두 사람은 이와 함께 불투명한 북한 정세와 관련, 한미일 3국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음.
 - 한편 교도통신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번즈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오키나와현이 작년 말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지 매립을 승인한 것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미일 동맹을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음.

바. 중일 관계

- <『中지도부, 日과 군사충돌방지 내부 합의』<교도>>(1/19,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10월 허순 베이징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중국은 일본과 싸울 의도가 없고 일본은 중국과 싸울 용기가 없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 소식통은 시 주석은 소강사회 달성이라는 중국의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시아 외교정책의 목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 또한 이틀간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영토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도 이뤄졌다고 전해짐.
 - 교도통신은 합의된 기본 원칙은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고위 간부 사이에 널리 공유되고 있으나 중국은 일본에 대한 압박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비밀로 했다고 지적했다.
- <중국 "안중근의사 기념관은 정당·합리"...日항의 반박>(1/20, 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일본정부가 20일 중국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 설치에 항의한 데 대해 "안중근은 저명한 항일의사다. 또한 중국인민의 존경을 받는다"고 말했다.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이 국내 유관법률에 따라 안 의사 기념관을 설치한 것은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일본의 모든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어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언급하며 "우리는 일본이 진정으로 역사를 정시하고 역사를 반성하고 참배문제에서의 잘못된 입장을 바로 잡으며 실제행동으로 아시아 이웃국가들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美지일파교수 "야스쿠니 재참배 대중 협상수단 될 것">(1/23, 연합뉴스)
- 일본 전문가인 제럴드 커티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22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재참배 여부가 중국과의 외교 협상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3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커티스 교수는 이날 뉴욕의 한 세미나 강연에서 "중국은 아베 총리의 이번 참배에 비교적 억제된 태도를 보였다"면서 야스쿠니 재참배 여부가 중일관계 개선을 위한 국면타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아베 총리의 참배에 미국이 '실망'을 표명한 사실은 "아베 총리에게는 충격일지 모르지만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 대두라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그는 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영토 분쟁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가 표면화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중국 왕이 외교부장 "아베, 변명할수록 본색 드러나">(1/24, 연합뉴스)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외교부 대변인의 비판에 이어 24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한 해명에 대해 맹비난했다.



- 왕 부장은 "중국에는 '진상을 감추려고 하다가 도리어 드러난다, 닦으면 닦을수록 검어진다'란 격언이 있다"면서 "아베의 해명은 그가 인류양심과 국제적 도리와 정반대인 잘못된 역사관을 완고하게 견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라고 비판했음.
- 앞서 중국 외교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역사적으로 일본이 중국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되돌아보라"면서 "만약 일본 지도자가 난징대학살 피해자의 후손이거나 강제동원된 위안부나 노동자, 731부대 생체실험 희생자들의 후손이더라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느냐"고 아베 총리의 다보스포럼 발언을 비판했음.

● <"아베 1차대전 발언은 오해"...日, 외교루트 통해 해명>(1/24,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일본 총리가 현재의 중일 관계를 1차 대전 대결 전의 영국과 독일 관계에 빗대어 설명한 데 대해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외교루트를 통해 외국 언론에 설명키로 했음.
-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은 미국과 유럽 언론을 상대로 아베 총리 발언의 진의는 중일 간 무력 충돌 회피에 있었다는 설명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음.
-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아베 총리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일부 언론과 가진 회견에서 "현재의 중일 관계를 1차 대전 전의 영국·독일의 대립관계에 비유하면서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국제적인 파문을 불러일으켰음.

사. 일·러 관계

● <"푸틴, 이르면 올가을 일본 방문" <日언론>>(1/22, 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의 초청을 받아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조정할 것이라고 소개했음.
- 양국은 오는 31일 도쿄에서 열리는 외교차관 간 회담,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에 즈음한 아베 총리의 러시아 방문 및 정상회담 등 기회에 푸틴의 방일 시기를 협의할 전망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푸틴 대통령의 방일 시기가 이르면 올가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일본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음.
- 한편, 라브로프 러시아 외상은 아베 총리의 작년 말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지역의 관계 정상화에 기여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한 바 있음.

아. 기타

● <"중국 항모 탑재기 쟁-15, 20대 생산" <대만 언론>>(1/20, 연합뉴스)



- 대만 중앙통신(CNA)은 미국 군사 웹사이트인 '전략페이지'를 인용해 중국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의 함재기로 결정된 쟈-15 전투기가 이미 20대 가량 생산됐다고 보도했음.
 - 초기 생산 전투기 가운데 5대는 시험 비행 전용으로 활용되고, 나머지는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며, 쟈-15 전투기는 작전반경이 1천km인 것으로 전해진바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함께 움직이면 동·남중국해 전역을 작전 범위로 할 수 있음.
 - 대만 매체는 이 전투기의 본격적인 양산은 랴오닝호의 전력화시기를 앞당기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음.
- <중국, 연초부터 남중국해서 전투순찰 훈련>(1/21, 연합뉴스)
- 대만 중앙통신(CNA)은 중국 해군 남해함대가 20일 남중국해에서 미사일 구축함 2척과 수륙 양용 상륙함 1척, 수직 이착륙 헬기 3대 등과 육전대(해병대) 1개 중대 병력을 동원해 전투순찰 훈련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 중국군은 상반기 중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가 참가하는 실탄 발사훈련을 남중국해에서 실시하는 방안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한편, 중국해군망은 21일 중국 해군이 차세대 이지스함인 052D형 미사일 구축함의 남해 함대 배치 사실을 확인했음.
 - 또한 미국의소리와 중화권 매체 뒤웨이 등은 21일 중국 해양보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하이난성 썬사시에 5천급 해양감시선을 배치, 정기 순찰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함에 따라 주변국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중국, 동평-31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훈련장면 첫 공개>(1/23, 연합뉴스)
- 중국과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최근 웹사이트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가 1만 3천km인 동평-31 미사일의 발사훈련 장면 등 전략미사일부대인 제2포병 부대의 훈련 장면을 담은 사진 17장을 공개했음.
 - 동평-31 미사일의 발사훈련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해방군보는 사진설명에서 이번 훈련이 언제 시행됐는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채 겨울이라고만 밝혔음.
 - 군사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사진 공개 배경에 대해 미국에 동중국해 영토 분쟁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음.
 - 홍콩의 군사분석가인 마딩성은 이는 중국군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평-31의 발사 훈련이 5천km 이내의 중국 영토 안에서만 이뤄진 만큼 사거리가 1만km를 넘는다 해도 실제 미국을 타격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음.



- <시진핑 직접 지휘 中 국가안전위 공식 출범>(1/24, 연합뉴스)
 -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지휘하는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인 국가안전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함으로써 중국은 외교부와 군, 국가안전부, 공안 등 관련 기관을 통합, 국가안보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사령탑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 시 주석은 '중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 조장에 이어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 주석까지 맡게 됨으로써 지난해 11월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신설이 확정된 양대 안보 및 개혁 기관을 직접 지휘하게 됐다.
 - 국가안전위는 공산당 중앙의 국가안전 업무 결정 및 의사 협조를 하는 기구로, 국가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항 및 중요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협의하게 됨.

- <아베, 취임후 국회연설서 집단자위권 첫 언급>(1/24,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회연설에서 "집단 자위권, 집단안보 등에 대해 '안보법제간담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헌법 해석 변경 의지를 천명했음.
 -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 자신의 두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 연설에서 명확하게 '집단 자위권'을 거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음.
 - 안보법제간담회는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4월 중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다는 계획임.
 - 아베 총리는 중일관계와 관련해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응을 시사했고 그럼에도 정상회담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부연했으며, 이어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은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전제한 뒤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한-스위스 정상회담...인적자원 개발협력 공감(연합뉴스, 1.21)**
 - 스위스를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디디에 부르크halter 스위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문제와 관련해 논의
 - 스위스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에 적극 동조한 점을 평가
 - 대북지원경험이 풍부한 유럽의 NGO(비정부기구)와 스위스 개발청 등과 우리 측 NGO가 공동으로 북한주민을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 **미 스탠포드대학 의료진 "북한 결핵 치료, 수요보다 공급 턱없이 부족"(미국의 소리, 1.21)**
 - 북한의 결핵 치료를 돕기 위해 최근 방북했던 미국 스탠포드대학 의대 의료진은 북한 내 결핵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
 - 지난해 11월 2주일 동안 북한에 다녀 온 이 대학 게리 스클닉 교수는 최근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글로벌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
 - 북한에서는 소수의 결핵 환자들만이 현대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결핵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려면 적어도 6개월 동안 4가지 다른 항생제를 투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재원이 부족하다고 설명
 - 스클닉 교수는 북한이 특별한 상황에 있지만 결핵은 국제 문제인 만큼 북한을 돕는 것도 전세계에서 결핵을 퇴치하는 과제의 연장선이라고 언급
 - 그러나 북한은 어디를 가든 안내원이 동행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말을 할 수 없는 것 등이 어려운 점이라고 밝힘.

- **북, 성폭행범 강력처벌 지시 왜?(자유아시아방송, 1.21)**
 - 북한 인민보안부가 새해 '100일 전투'의 '10대 소탕과제'에 강간범죄를 추가
 - 소식통들은 무차별적인 성폭행 범죄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져 커다란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등장한 때문이라고 지적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인민보안부가 올해 산하기관들에 내려 보낸 '100일 전투'의 주요 '10대 소탕과제'에 강간범죄도 추가됐다"며 "강



간범죄를 이례적으로 추가한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

- 함경북도의 인민보안부 관계자는 "강간범죄를 '10대 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강력히 다스릴 데 대해 지적한 것은 더 이상 방지할 수 없을 만큼 강간범죄가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언급
- 강간범죄의 대부분은 군인들과 돌격대원들과 같은 집단생활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데 특히 군인들의 경우, 인민보안부에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조사도 할 수 없는 상황
- 일각에서는 인민보안부장 최부길이가 강간범죄를 비롯해 일반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군인들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제기

● **"北, 행불자 무조건 한국행으로 간주"…주민 검열에 몸살(데일리NK, 1.22)**

- 북한이 최근 국경 연선(沿線) 지역에 파견한 인민보안부 산하 정치대학생들로 구성된 검열단이 주민들의 탈북을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검열 진행
- 검열단은 현지 보안원들 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주민 검열뿐 아니라 체포도 강행
- 양강도 소식통은 검열원들이 분주소(파출소)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 대장을 가지고 호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행불된 세대원의 행적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타지방에서 사망한 주민에 대해서도 확인서를 받아올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설명
- 압록강북에는 보안원들과 경비대군인들 외에도 정치대학학생들이 진을 치고 있어 조금만 의심스럽거나 가족단위로 이동하는 주민들은 단속의 대상으로 되고 있고, 중국 쪽을 무심히 바라보거나 이유 없이 강북에서 서성거리도 단속의 대상
- 소식통은 "이번 검열이 주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보안원들이나 지인을 통한 '뇌물공작'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
- 다만 소식통은 지금은 검열 시작이니까 눈에 쌍심지를 켜지만 날이 어느 정도 지나면 간부들 몰래 뇌물을 받고 눈감아주기도 할 것"이라고 언급

● **북한, 탈북자 가족 집단 농장으로 강제 이주(KBS TV, 1.24)**

- 북한이 최근 가족가운데 탈북자가 있는 가정들을 함경도 지방의 집단 부락에 강제 수용해서 엄격한 통제 아래 살게하고 있음.
- 북한 당국이 탈북자 가정을 강제로 이주시키기 시작한 것은 지난 14일부터로, 보위부 요원들이 북중 접경지대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을 벌인 직후



- 추방된 가족들이 머무는 장소는 고원에 위치해 겨울이면 영하 20도 이하의 강추위가 지속되며 감자농사 외에는 작물재배도 힘든 최악의 지대
-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처벌을 대폭 강화해 국경경비대에 탈북자를 발견할 경우 현장에서 즉각 사살 명령을 내리고, 탈북 브로커와 국경을 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

● **北주민, 요즘 국경경비대 믿고 밀수·탈북하려 했다가…(데일리NK, 1.24)**

- 북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중 국경경비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최근에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나 생계형 밀수 등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음.
-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당국의 경비대원들에 대한 징계 강화로 주민들의 탈북과 밀수를 돕던 경비대원들이 배신하는 경우가 증가해 탈북과 밀수를 하던 주민들의 체포와 체포된 주민들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도 증가
- 함경북도 무산 소식통은 "민었던 브로커, 국경경비대원이 탈북 방조에 대한 처벌 강화 포치로 배신하는 경우가 늘어 주민들은 돈도 없고 목숨도 없고, 희망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

● **탈북 중고교생 미 로펌 초청 LA 방문(자유아시아방송, 1.22)**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라는 법률회사가 탈북 학생들을 미국에 초청해 탈북 고교생들이 7박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

● **북 주민들, 어린이 교육조치에 냉소(자유아시아방송, 1.23)**

- 북한 당국이 국영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정상운영 및 점심식사 제공을 지시했으나 주민들은 "그래 봐야 며칠이나 가겠는가"라며 의심하는 형편
- 어린이 교육체계를 개선하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이 국영 탁아소와 유치원의 정상운영을 구실로 개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없애고 있다고 북수의 소식통이 언급
- 최근 '어떤 일이 있어도 탁아소와 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김정은 제1비서의 지시가 내려오면서 개인들이 불법적으로 운영하던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됐으며, 적발된 사람들은 농촌에 추방될 것이라고 최근 연락이 닿은 양강도의 소식통이 설명
-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각 도당 교육부에 어린이 교육개선을 위한 '특별상무'가 조직됐다"며 "내각이 책임지고



어린이들의 점심식사와 난방문제를 무조건 보장하라"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내용을 전달

- 유치원과 탁아소를 정상운영 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그래봐야 며칠 가겠냐"며 "보육원 교사들의 배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면 어떤 교사들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냉소

2. 북한인권

● 유엔 COI, 다음달 최종 보고서 발표(자유아시아방송, 1.22)

-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주세페 칼란드루치오(Giuseppe Calandruccio) 공보담당은 조사위원들이 지난 주말까지 제네바에서 최종 보고서 준비를 했다고 발표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조사와 관련한 최종 보고서가 3월 17일이나 18일 경 유엔 인권이사회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

● "北, 탈북 기도자 고문...김정은 체제 변화 없어"(연합뉴스, 1.22)

-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1일(현지시간) 지난 한 해 북한 등 세계 90개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해 이날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도 탈북 기도자는 극심한 고문을 받는 등 주민들의 인권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
- 오히려 김정은 권력 승계 직후 북한 정권은 국경 순찰을 강화하고 국경을 허가 없이 넘는 이들을 바로 사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탈북자가 북송되면 고문과 신문을 받은 뒤 정치범 수용소 등으로 보내진다고 설명
- 또 북한에서 수감자의 잠을 안 재우거나 구타를 하고 또한 장시간 세워두는 등의 고문이 일상화됐으며 교도관들이 여성 수감자를 성폭행하기도 한다고 비판
- 사형의 지나친 적용, 열악한 상황의 정치범 수용소(관리소), 이전의 자유 제한, TV 등 정보 매체 통제 등도 언급

● 차대통령 "통일, 北주민 배고픔·인권유린 해결하는 길"(데일리NK, 1.23)

- 박근혜 대통령은 제44차 WEF(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 개막일인 22일(현지시간) 첫 전체세션 개막연설 직후 클라우드 슈밥 다보스포럼 회장의 질의에 "지금 북한의 주민들이 배고픔과 인권유린 등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통일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언급



- 프리덤하우스 '북한인권 세계 최악 중 최악'(미국의 소리, 1.24)
 - 북한이 올해도 세계에서 인권 탄압이 가장 심한 나라로 지목
 -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23일 발표한 2014 세계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 국가 10개 가운데 하나로 선정
 - 프리덤 하우스는 최고 1점에서 최하 7점을 기준으로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환산한 결과, 북한은 모두 가장 낮은 점수인 7점을 받았다고 설명
 - 이에 따라 지난 해 8년 연속 전 세계 자유가 쇠퇴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41년 보고서 역사상 최장 기간의 쇠퇴

- 영 외무부장관, 유엔 북 인권조사 큰 관심(자유아시아방송, 1.24)
 - 영국 외무부의 휴고 스와이어 부장관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주요 의제로 영국의 상하원 의원, 인권단체 관계자, 탈북자 등이 지난 23일 의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지적
 - 이번 토론회는 영국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 위원회(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가 의원들과 스와이어 부장관 등 영국 외무부 관리와 영국의 대북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
 -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영국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세계기독교연대(CSW)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팀장은 로저스 팀장은 아직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 스와이어 부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는 않으면서도 조사위원회가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설명
 - 스와이어 부장관이 국제사회가 유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단지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충분한 이해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

3. 탈북자

- "탈북민들을 위한, 탈북민들에 의한...탈북자 지원 이뤄져야"(코나스넷, 1.24)
 - 탈북자단체들의 범연대조직인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대표회장 한창권)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과 관련한 기관 및 재단에 대해 성토
 - 한창권 대표회장은 "탈북민들을 위한, 탈북민들에 의한, 탈북민들의 바램대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이뤄



져야 한다"고 주장

- 특히, 통일부 정착지원과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을 거론하면서 "이 분야가 탈북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탈북민들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정치인들과 낙하산 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지적
- 한 회장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일체의 사업에 대해 형평성, 적법성, 효율성, 그리고 사업 실효성과 탈북자들의 정책고객평가를 지체없이 실시해 올바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언급
-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민들의 정착지원에 기여하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으며 "수많은 낙하산 인사들의 역대연봉과 용역의 명목으로 지불되는 한국인들의 또 다른 국가예산 따먹기와 이벤트성, 전시성 행사와 입이 벌어지는 호화스러운 건물임대료와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지출될 뿐,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한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비판

4. 이산가족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작년에만 3천800여명 사망(연합뉴스, 1.22)

-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1988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9천264명이나, 이 가운데 지난해에만 3천841명이 사망
- 전체 상봉 신청자의 44.7%에 이르는 5만7천784명이 사망해 생존자는 7만1천480명에 불과
-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80세 이상이 52.8%에 달하는 등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81.5%를 차지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

● 북한, 이산가족 상봉 제의... "설 지나 편리한 시기에"(연합뉴스, 1.24)

-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이날 남측 적십자사에 통지문을 보내 북한이 24일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전격 제의
- 조선중앙통신은 "북남 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행사를 진행하자"라고 제안했다고 보도
- 통지문은 "상봉행사는 이미 북남 적십자단체들이 합의하였던 대로 금강산에서 진행하되 날짜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설이 지나 날씨가 좀 풀린 다음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

● 정부 "뒤늦게나마 이산상봉 우리 제안 수용 환영"(연합뉴스, 1.24)

- 정부는 24일 북한이 설 이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전격 제



의해온 데 대해 "북측이 뒤늦게나마 우리의 제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표명

-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산가족 상봉 시기와 협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추후 통보할 것"이라고 제시

● **여야, 北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일제히 '환영'(연합뉴스, 1.24)**

- 여야는 24일 북한이 설 이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전격 제의해온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
-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 측의 전향적인 모습을 환영한다"면서 "정부는 북한 제의를 조속히 검토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언급
- 다만 민현주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제안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절하고 이제 와서 다시 제안했는데 북한의 속마음에 불순한 의도가 없길 바란다"고 지적
- 민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좋은 선물"이라면서 "남북한이 어떤 조건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즉각 상봉행사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발언
-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어렵게 열린 대화의 장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져 좋은 결실을 보길 간절히 바란다"며 당부
-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남북관계가 복잡하게 꼬여 있을수록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교류의 물꼬를 잘 터나가야 한다"며 "신중하게, 그러나 통 크게 조속히 실무협약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

● **'2월 중순 이산상봉' 추진...대북전통문 내일 전달(연합뉴스, 1.26)**

- 정부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수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우리 정부 입장과 상봉을 위한 실무협의 방법 등을 담은 대북 전통문을 27일 전달할 예정
-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수용한다고 밝힌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통일부 주도로 내부 회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했으며 청와대와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전통문 내용을 확정 지을 방침
- 정부는 대북 전통문에서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 수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다시 피력하면서 이른 시일 내 이산상봉 성사를 제의하고,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 방법을 제안할 예정
-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당장 27일 대북 전통문에서 상봉 날짜를 특정해 제안할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실무 협의 날짜가 정해지면 이를 통해 이산상봉 날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 유럽 NGO, 북한 토양해충 퇴치 지원(자유아시아방송, 1.23)

- 영국에 본부를 둔 유럽의 농업생명과학센터(CABI)는 북한의 토질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으로, 이번 주 연구원을 북한에 보내 지원 사업의 현황을 점검할 계획
- 이번 주말부터 약 3주간 북한에 머물며 공동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안악군과 신원군을 방문해서 농업생명과학센터의 연수에 참여한 협동 농장 지도자들을 만나 교육의 성과를 확인할 계획
- 농업생명과학센터 스위스 지부 소속인 케이트 홈즈 국장은 2012년부터 올해 말까지 유럽연합의 유럽원조협력청(EuropeAid)의 자금 지원을 받아 북한 농업기관과 함께 토양 해충을 퇴치하는 연구를 진행하며, 북한 농민 지도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
- 지난해 3월 황해남도 안악군에서 농민 지도자 25명을 대상으로 토양 해충 퇴치와 관련한 현장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9월 황해남도 신원군에서도 비슷한 연수 행사를 개최
- 유럽의 농업생명과학센터는 지난 3년 간 공동 연구의 성과물인 해충 퇴치용 방안을 활용해서 평안 근처 시범 농장에서 시험 재배를 하고 있다고 소개

● 고려투어, 원산시 고아원 개보수(자유아시아방송, 1.23)

- 북한전문 여행사인 '고려 투어'가 600명의 어린이를 수용하는 원산시의 고아원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화 7천 600달러가 필요하다고 지원을 호소
- 주로 7살부터 12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고아원은 1970년대에 지어져 매우 노후한 상태이며, 최근 북한 당국이 무상 교육을 12살까지로 연장해 고아원이 내년부터는 100명의 어린이를 더 수용하게 됐다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
- 이번 사업에는 뉴질랜드 구호 단체인 마라마 글로벌 (Marama Global)이 고려 투어와 공동으로 참여
- 원산시 고아원 개보수 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으며 이미 마무리 단계에 놓여있는 상황

● 북 어린이 일본뇌염 예방접종 완료(자유아시아방송, 1.24)

- 대북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독일 카리타스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일본 뇌염접종 사업을 모두 마쳐 북한 어린이 310만여 명이 수혜
- 접종 대상은 2살에서 4살, 그리고 9살에서 16살까지로 평양지역을 비롯해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황해남도에서 실시
- 독일 카리타스의 볼프강 게스트너 담당관은 1월 방문을 끝으로 4번에 걸쳐 북한에서 실시한 일본뇌염 예방접종 사업을 모두 마쳤다고



설명

- 이번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2012년 독일 카리타스가 북한 보건성의 요청에 의해 추진했던 사업으로 2000년대 말 지원하다 중단된 것이 되살아난 것
- 이와 함께 지난 해 12월 북한에 들여온 콩 300톤과 설탕 30톤, 식물성 식용유 30톤을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강원도 지역에 있는 결핵 및 간염환자 치료시설 154곳에 분배하는 작업도 이달 모두 완료
- 또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평양에서 실시한 태양열 온실 설치 작업이 완료되어, 앞으로 이 온실에서 생산되는 각종 채소와 버섯 등은 결핵 및 간염환자 치료시설로 보내질 예정

● '영국, 2007년부터 북한에 1천7백만 달러 인도 지원'(미국의 소리, 1.25)

- 앨런 던컨 영국 국제개발부 부장관은 지난 22일 영국 의회에 제출한 서면보고를 통해 북한에 대한 영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내역을 공개한 결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총 1천38만9천 파운드, 미화 1천7백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
-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 내역은 통계 작업이 끝나지 않아 보고에 미포함
- 구체적으로는 2007-2008년 130만 파운드, 2008-2009년 93만 파운드, 2009-2010년 130만 파운드, 2010-2011년 483만 파운드, 2011-2012년에 195만 파운드를 지원
- 던컨 부장관은 영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다양한 단체들을 통해 국제개발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개발기금과는 별도로 지난 2009년에 추가로 280만 파운드, 미화 460만 달러를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을 통해 북한에 지원했다고 설명
- 영국 외교부는 또 조선장애자지원연맹, 조선연로자보호연맹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
- 특히 지난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과 그 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안청소년장애인경기대회의 북한 선수단 출전 비용을 지원했다고 언급

8. 북한동향

- 특이 동향 없음.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